

취재파일

봄비는 식당…텅빈 관중석
거리두기 ‘형평성’ 아쉽다

구단들 적자가 95%…야구장 내 상인들 생존 위기
전문의를 “야외가 훨씬 안전…관중입장 과한 규제”

최악의 바이러스가 1년 넘게 전 세계를 할퀴고 있다. 거리의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쓴 풍경은 익숙한 일상이 됐다. 지난해부터 창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너무도 많은 것들을 바꾸고 있다.

●“적자? 팬들의 소중한 발걸음”

프로야구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20경기 중 관중입장은 143경기(19.9%)뿐이었다. 그나마도 2m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30% 안팎의 적은 인원만 입장이 가능했고, 총 관중은 32만8317명에 불과했다. 구단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95% 안팎의 적자를 봤다.

이런 흐름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관중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연동된다. 20일 기준 거리두기 2.5단계인 수도권 및 2단계인 대전과 부산은 정원의 10%, 1.5단계의 타 지역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해타산만 따지면 지금의 관중입장은 곧 적자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지키기 위해 100% 관중입장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팬들의 발걸음을 막을 순 없다. “결국 팬이 있어야 야구단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해 고통으로 새삼 되새겼기 때문이다. 수도권 A구단 단장은 “최대 10% 관중입장이 적자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엄중한 시국에도 야구장을 찾아주시는 팬들의 걸음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구계에는 “이대로라면 일부 구단은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 그렇다고 특혜를 주장할 수도 없다. 다만 바라는 것은 형평성이다. 식당, 주점, 대형 쇼핑몰, 공연장 등 대다수 시설의 거리두기 지침이 야구단 입장에선 부러움의 대상이다. 실내시설인 대극장에서선 두세 자리마다 한 칸씩 띄운다. 동반 2인은 나란히 관람이 가능한 셈이다. 지방 B팀 관계자는 “지난 주말 낮경기를 마친 뒤 식당에 갔다. 거리두기 지침을 어긴 4인 테이블 여럿이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는데, 텅 빈 관중석이 오버랩되면서 만감이 교차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확신, “야외가 훨씬 안전”

감염병 전문가들은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현행 관중입장은 과한 규제다. 야외가 훨씬 안전하다. 바람이 부는 환경에선 바이러스가 떠있을 틈이 없다. 옆 사람 얼굴에 침을 튀기면서 얘기하지 않는 이상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 마스크 착용 및 음식물 섭취 등 방역지침을 준수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중이 들어와도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중 인원을 찾은 SSG 랜더스 팬 김창의 씨(44)는 “코로나19 이후 야구장에 처음 왔었는데 입장까지 굉장히 까다로웠다. 관중석에서도 거리두기가 확실하다. 생각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모여있다면 정부에서도 그 점이 부담스러울 텐데,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오히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채 야외활동을 한다면, 코로나19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상징할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KBO리그는 1군 선수단 및 관중의 확진자 없이 시즌을 마쳤다. KBO리그의 방역을 타 리그에서도 벤치마킹했다.

일각에선 대기업을 운영하는 야구단의 경우 배경이 탄탄하기에 우려가 덜할 것이란 시선도 있다. 하지만 야구장 내 입점한 상인들은 물론 보안 등을 담당하는 하청 업체들은 일반 식당, 주점을 운영하는 이들과 같은 소상공인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 프로스포츠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민생경제, 교육문제와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순기능도 분명하다.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안전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있다. 프로야구계가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닌 형평이다.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김재호 돌아와도 선발 유격수는 19세 새내기 안재석

“포스트 김재호 뒀다”
안재석에 웃는 두산

17년만에 야수 1차 지명으로 화제를 시즌 4차례 선발 출장 무실책
김태형 감독 “핸들링 좋다” 극찬

두산 베어스의 20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 선발 유격수는 안재석(19)이다. 144경기 중 한 경기의 라인업. 하지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김재호(36)는 경사를 마치고 돌아오며 에너지와 멘탈을 가득 채웠고, 두산은 그 사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었다.

두산은 20일 내야수 김재호, 오재원과 포수 최용제를 1군에 등록했다. 야수 중 이탈자는 포수 박세혁, 중견수 정수빈 등 둘로 줄었다. 오재원은 흉부 통증을 회복했고, 16일 경사 휴가로 말소됐던 김재호는 셋째 아이 출산을 지켜보고 돌아왔다.

김태형 감독은 롯데전에 8번타자 겸 유격수로 안재석을 배치했다. 오재원이 곧장 2루수로 선발출장한 것과 대비된다. 안재석이 적은 기회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였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김 감독은 “(김)재호가 사흘을 쉬었다. 감각을 회복해야 한다”며 “(안)재석이가 지금 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돌아켜보면 안재석은 지명부터 화제였다. 두산은 2021 KBO 신인드래프트 1차지명으로 서울고 출신 안재석을 지명했다. 두산이 1차지명에서 야수를 택한 것은 2004년 김재호 이후 17년만이였다. 롤 모델로 삼은 이와 이름이 나란히 오른 것만으로도 안재석에게는 감개무량했을 법한데, 스프링캠프와 개막 엔트리에도 포함됐다. 멀게만 보였던 우상

은 이제 한결 가까워졌다. 삼촌뻘 선배들 앞에서도 기죽는 모습은 없다. 수비의 핵심 유격수로 꾸준히 기회를 받는 자체가 능력이다. 20일 경기에서 안재석은 17세 위 선배인 2루수 오재원과 호흡을 맞췄다. 역대 최다 나이차 6위(6215일) 키스톤콤비의 탄생이었다.

단순히 미래를 본 선택만은 아니다. 김 감독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다. 핸들링이 특히 좋았다. 본인이 욕심도 많아서인지 자신 있게 하고 있다. 김재호 다음으로 유격수를 맡겨야 할 선수”라고 칭찬했다. 이어 “야구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한 번은 풍파가 올 것이다. 두세 경기 못하면 젊은 선수들은 멘탈에 기복이 생긴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 안재석은 그런 기질도 있는 것 같다. 좋은 선수가 갖춰야 할 걸 잘 갖췄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안재석은 올 시즌 4차례 선발 출장에서 실책 없이 깔끔한 수비를 뽐냈다. 단순히 무실책이라는 숫자를 넘어 17일 잠실 LG 트윈스전 등에서 수비로 팀을 구해내기도 했다. 미래를 위한 포석으로 생각했던 유망주가 오히려 현재까지 보탬이 되고 있는 셈이다.

아직 영글지 않은 고졸 루키임에도 대선배들의 타구를 따라간다는 자체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수비만큼은 리그 대표 유격수와 견줘도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다. 이정후(키움 히어로즈)와 강백호(KT 위즈)가 방망이로 모두를 놀라게 했듯, 안재석은 수비로 놀라움을 선사할 자질이 충분하다.

사직 | 최익재 기자 ing17@donga.com

두산 새내기 유격수 안재석은 수비에서 발군의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아직 19세에 불과하지만, “핸들링이 특히 좋았다. 본인이 욕심도 많아서인지 자신 있게 하고 있다”는 사령탑의 칭찬 속에 당당히 선발출전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 18일 잠실 LG전 타석에 들어선 안재석.
촬영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SSG 하재훈은 어깨 부상에서 회복해 올 시즌 재기를 노린다. 아직은 2년 전의 ‘철벽 마무리’다운 모습은 아니다. 14일 1군에 합류한 뒤 이들 간격으로 등판 중이지만, 구위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인천 NC전에 등판해 역투하는 하재훈.
인천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김원형 감독 “하재훈 미흡…마무리 보직 결정 유보”

“잘하고 있지만 내 눈높이 더 높다”
이달말까지 김상수 마무리 맡기로

SSG 랜더스 불펜이 완전체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걸릴 듯하다. SSG 김원형 감독은 2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14일 1군 엔트리에 등록된 마무리 유력 후보 하재훈에 대해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재훈의 몸 상태 때문이다.

하재훈은 1군에 등록된 14일 인천 NC 다이노스전에서 끝장 마운드에 올랐다. 4사구 1개를 내줬지만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이후 이틀에 한 번씩 등판했다. 16일 인

천 KIA 타이거즈전 1이닝 무실점에 이어 18일 다시 KIA를 상대로 출격했지만 두 타자를 상대하고는 강판됐다.

김 감독은 “하재훈이 오랜만에 1군 무대에 섰는데 잘 했다. 이틀에 한 번씩 공을 던졌는데 선수가 피로감을 느끼는 듯하다. 퓨처스(2군)와 1군은 아무래도 휴식일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로서는 하재훈의 등판간격을 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하)재훈이가 잘하고 있지만 사실 감독의 눈높이는 더 높다. 1군 첫 날은 아주 좋았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씩 미흡했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김 감독은 당초 하재훈이 1군에 합류한 뒤 3, 4번 정도 등판하면 확실하게 보직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지난 3경기를 통해 드러난 하재훈의 몸 상태로는 보직 결정에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해 구상을 변경했다. 김 감독은 “임시 마무리(김)상수를 향한 불안한 시선이 많지만, 한 번을 제외하고는 팀 승리를 지켰다. 하재훈이 정상 컨디션을 되찾으면 불펜은 조각이 맞춰질 것 같다. 그 시점은 좀더 생각해봐야 한다. 이달 말까지 김상수에게 마무리를 맡겨야 할 것 같다”고 솔직히 털어놓았다.

2019년 5승3패3세이브3홀드, 평균자책점 1.98로 부동의 마무리로 자리 잡았던 하재훈은 지난해 어깨 수술을 받고 시즌을 조기 마감했다. 올 시즌 재기를 노리고 있다. 대구 | 최용승 기자 gtyong@donga.com

‘전염성 눈병’ 김재유…‘교통사고’ 박민우…야구장 밖 변수를 어찌할꼬

〈롯데〉



NC 박민우

허문회 감독 “선발 출장 계획했는데”
박민우 허리 긴장…“상황 지켜봐야”

부상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온다. 야구장 안에서의 부상이라면 사령탑이 이후 플랜을 짜기가 덜 어렵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아픔을 겪는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야구가 말처럼 안 된다”는 사령탑들의 푸념이 이해가 되는 대목이다.

롯데 자이언츠는 20일 사직 두산 베어스

〈NC〉

데 감독은 “원래 20일 경기에 선발출장시킬 생각이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전염성만 없어도 괜찮았을 텐데 다른 선수들까지 다 앓을 수 있어 말소했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않았다.

NC 다이노스도 20일 창원 KT 위즈전에 앞서 내야수 박민우를 부상자 명단에 올렸다. 박민우는 19일까지 NC가 치른 13경기에서 모두 2번타자 겸 2루수로 선발출장한 바 있다. 박민우는 19일 오후 교통사고를 당했다. 뒤따르던 차가 박민우의 차량과

추돌했다. 경미한 접촉사고 수준으로 몸 상태에는 큰 이상이 없지만, 교통사고라는 특성상 추이를 지켜보기 위한 선택이었다. NC 관계자는 “허리쪽 근육이 살짝 경직된 상태다. 일단 20일은 야구장에 출근했다가 퇴근했고, 21일 재활군으로 이동해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KBO리그는 시즌 초반부터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변수투성이다. 언제나 그래왔지만, 야구 외적인 부상은 계산조차 할 수 없는 돌발변수다.

사직 | 최익재 기자